

산림청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의 여운

박 승 수 산림청 민원보호담당관

○ 「국토녹화 기념관」은 왜 없나?

제1,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1987년에,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은 1997년에 각각 마무리 되었고 1998년에 시작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이렇듯 네 번의 10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안 산림청은 개청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청 40주년! 사람으로 치면 불혹지년이다.

그 곳에서 젊음을 쏟아 부어 오늘의 숲을 있게 한, 아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님들과 뜻있는 축하객들로 가득 메워진 기념식장은 강산을 네 번이나 바꿔놓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감회에 짓눌리고, 연무 속에 40주년 기념생사의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는 가슴을 고동치게 했으나 무엇인가 허전하기만 하던 가슴 한쪽이 끝내 저러오기 시작했다.

빼앗긴 35년의 치욕, 6.25한국전쟁, 그 참담한 혼란 속에서 붉은 알몸을 드러내버린 강산을 푸르게푸르게 되살려 낸 「국토녹화의 역사」, 그것을 세계는 아낌없이 칭찬했다. 그럼에도 「국토녹화 완성의 역사」를 기념할 만한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그렇게 허전했던 모양이다.

기념관을 짓고 혹은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을 있게 한 그 역사를 잊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영원일 것이다.

독립기념관, 유관순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반공소년 이승복기념관 등 많은 기념관이 그것이다. 이 같은 기념관은 모두 암울하고 험난했던 근현대사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 기념관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때가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행사를 갖곤 한다.

이 같은 행사가 암울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다짐이라면 승리의 역사는 거듭 발전시켜나가는 다짐일 것이다. 그 승리의 역사가 「국토녹화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그 기념관 앞에서 국토사랑의 송고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

「국토녹화 완성」!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붉은 알몸을 송두리째 들어낸 민둥산을, 그 부끄러움을 말끔히 씻어버린 승리의 역사이다.

○ 「이룰 꿈 40년!」 그것은 무엇일까?

감히 「산림주권山林主權」과 「독립임업獨立林業」이 아닐까 한다.

산이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하자 다름 아닌 산림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산림은 자꾸만 좁아지는 느낌이다.

자원공원, 개발제한 구역, 도시의 광역화와 함께 확장되어 가는 자연녹지와 도시공원 등이 산림의 입지를 잠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을 그 무엇이라 부르던지 간에 「산림주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 「독립임업」이란 무엇을 이름인가?

농장에는 “농부”가 바다에는 “어부”가 있으며 대장간에는 대장장이가 있다. 그런데 저 숲에는 누가 있단 말인가. 그곳에 “숲짓”는 이들을 깃들게 하려면 잠자는 임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장래는 「산림주권」과 「독립임업」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점점 깊어만 가는 이상기후변화가 그렇고, 숲은 가만히 놓아두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 그뿐 아니다. 달력에서 「육림의 날」을 지운지가 언젠데 「식목일」마저 퇴색시키고 말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이룰 꿈 40년!」 그 1세대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의 큰 뜻을 이어내리고 「이룰 꿈 40년!」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곳, 그 「국토녹화 완성」의 기념관이 더욱 절실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반드시 「국토녹화 기념관」이 아니라도 좋다. 「산림회관」이면 어떻고 「임우회관」이면 어떤가. 붉은 황토바다, 그 황량한 빈 땅에 산림·임업인의 열정을 쏟아 부어 푸르게푸르게

되살려낸 「국토녹화의 완성」 그 승리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내리며 개청 80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한 발에서 시작한 『이룰 꿈 40년! 이룰 꿈 40년』, 산림청 개청 40주년기념 행사는 버스가 양재역에서 덜컹 멈춰 섰을 때 끝이 났다.

세월이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지라도 나라 사랑 산림·임업인의 국토녹화정신은 저 질푸른 숲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어야 한다.

선배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여러분과 다시 산과 나무와 숲을 그릴 수 있게 불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07.신춘.홍릉) 

